



孔廟- 유교 문화권의 聖地

- 큰 吉地에 자리한 大成殿 -

중 국 산둥성 곡부시에는 공자를 제사지내는 사당인 공묘(孔廟), 공자의 후손들이 세거(世居)해온 공부(孔府)와 공자와 후손들 무덤 터인 공림(孔林)이 있는데, 그 규모와 유구한 역사에서 다른 곳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명소가 돼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성지가 됐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자는 2,500여 년 전에 곡부시 인근의 추현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이 곡부에서 생활한 인류의 큰 사표로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할 왕도 정치의 이론을 정립한 대성(大聖)이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노나라를 비롯하여 주, 제, 위, 진나라 등을 찾아가 유세하면서 왕도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이곳 곡부로 돌아와 3,000명의 제자를 모아 가르침으로써 세계 3성(三聖)의 반열에 오른 대학자이다.

그의 가르침은 중국 춘추전국시대라는 혼란한 배경 속에서 기록되기도 했지만 지정학의 건지에서 볼 때 전통적 농경 사회의 풍토에 잘 맞아 떨어져 이후 범동양권의 지도 이념으로 굳건히 자리매김됐다. 또한 그는 그동안 관치 위주의 교육 사업에 대신한 최초의 사학을 크게 일으키는 업적을 이루어 이후 동양권 사학의 수범이 되게 하기도 했다.

곡부시에 있는 공묘는 공자를 제사지내는 사당으로서 노나라에 공이 공자가 작고한 1년 뒤에 그가 살던 집을 개축해 묘당을 짓고 위패를 모셨으며 한 나라 한 제가 조명을 내려 묘당을 크게 개축한 뒤 청나라 목종 때까지 57차례에 걸쳐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중수해 현재 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한다.

이 공묘의 본전 건물인 대성전은 북경의 자금성 주전인 태화전과 태산에 있는 대묘의 천황전과 더불어 중국의 3대 고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는 웅대한 전각이다. 이 대성전의 높이는 32m, 폭은 54m, 길이는 34m로서 그 규모가 웅대함은 물론 28개의 돌기둥으로 떠받쳐 있는데 그중 10개의 대리석 돌기둥에는 생동하는 모습의 용신을 조각해 놓아 화려해 하기가 이를 데 없다.

공묘의 전문에 해당하는 금성옥진방에서 대성전에 이르는 1km와 길에는 명성문, 성시문, 홍도문, 대중문, 동교문 등이 이어져 있으며 이곳에 규문각이 자리해

있어 전원으로 불리며 규문각과 대성문 사이를 중원, 대성문에서부터 대성전이 있는 본전 일대를 본원으로 일컫는다.

규문각은 도서관격의 건물이고 이 일대에 13개의 비정이 있으며 그 뒤에는 공자가 학문을 논하다가 쉬었다는 행단이 자리해 있다. 행단 바로 뒤편에는 이 공묘의 본전인 대성전이 장려한 모습으로 우뚝 서있고, 이 건물 앞 양쪽에는 공자

의 제자 중 72현의 위패를 모셨던 동·서무가 있으며 본전 뒤에는 공자 부인인 기관씨의 침전이 세워져 있다.

이 건물의 뒤편에는 대리석에 공자의 일대기를 그려 조각한 성적도를 안치해 놓은 성적전이 있는데 이들 많은 고건축물과 수백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각종 수목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색채 양한 성소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 공묘 일대도 자금성과 같이 넓은 들판 가운데 위치해 있어 용·호·사를 식별하기 어려운 지상이어서 풍수해설을 하기 어려운 터전이지만 필자가 자세히 감정해보니 주전인 대성전이 준통대명당의 큰 길지에 바르게 건립돼 있어 그간 2,400년에 걸쳐 공자를 치제하고 유교 교리를

홍포하는 데 크게 기여한 좋은 터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광석
건설원가협회 회장